

I. 動向과 展望

1. 國內 金利

- (動向) 통화 관리 완화 및 은행권 자금 사정 호조로 장단기 금리 하락세
 - 3월 15일 현재 콜금리, CD 수익률, 회사채 수익률은 각각 2월말 대비 5.0%p, 0.85%p, 0.20%p 하락한 12.0%, 15.65%, 15.25%를 기록함
- (展望) 3월 중순 이후 콜금리는 12~13%, 회사채 수익률은 15.20~15.30%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됨
 - 콜금리는 기관들의 중장기 채권 투자로의 자금 운용과 그동안 고금리로 주춤했던 기업 자금 수요가 증대되어 추가 하락은 어려울 전망
 - 회사채 수익률은 회사채 공급 물량 축소에도 불구하고, 支準(3월 22일)에 대비한 은행권의 보수적 자금 운용으로 현수준에서 소폭 등락할 전망

- (動向) 3월에 들어 시중 자금 사정 호전으로 장단기 금리는 하락세
 - 韓銀이 덕산그룹 부도(2월 27일)의 파급 효과에 대비해 3월 2일~6일에 걸쳐 1조 5천억 원을 방출하였음
 - 특히, 3월 5일 총통화 증가율이 정부 목표치인 18%보다 낮은 16.5%를 유지하여 향후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자금 가수요가 축소됨
 - 한은의 공모주 청약 예금에 대한 예대상계 조치가 총통화 증가율을 낮추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(예대상계 규모 1조 원으로 추정)
 - 은행권은 고수익 신탁 상품에 대한 수신 증가로 자금 사정이 호조세를 보임
 - 3월 8일 현재 은행 신탁계정 수신고는 105조1,760억 원으로 2월말 대비 5,700억 원 증가
 - 자금 사정 호전에 따라 3월 15일 현재 콜금리, CD 수익률, 회사채 수익률은 각각 2월말 대비 5.0%p, 0.85%p, 0.20%p 하락한 12.0%, 15.65%, 15.25%를 기록함
- (展望) 3월 중순 이후 콜금리는 12~13%, 회사채 수익률은 15.20~15.30% 전망
 - 콜금리는 기관들의 자금이 중장기 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고금리로 주춤했던 기업 자금 수요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하락은 어려울 전망
 - 회사채 수익률은 공급 물량이 축소(3월중 발행 허용 물량 1조 1,700억 원, 전년동월대비 15.1% 축소)되는 반면, 회사채 수익률 고점 인식 확산에 따른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큼. 그러나 支準(3월 22일)에 대비한 은행권의 보수적 자금 운용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함

<最近 金利 推移>

	94말	1/28	2/2	2/15	2/28	3/2	3/15
콜금리(% , 1일물)	25.00	25.00	25.00	16.00	17.00	14.50	12.00
CD(% , 91일물)	15.40	16.54	16.50	16.89	16.50	16.40	15.65
회사채(% , 3년물)	14.25	15.20	15.23	15.35	15.45	15.50	15.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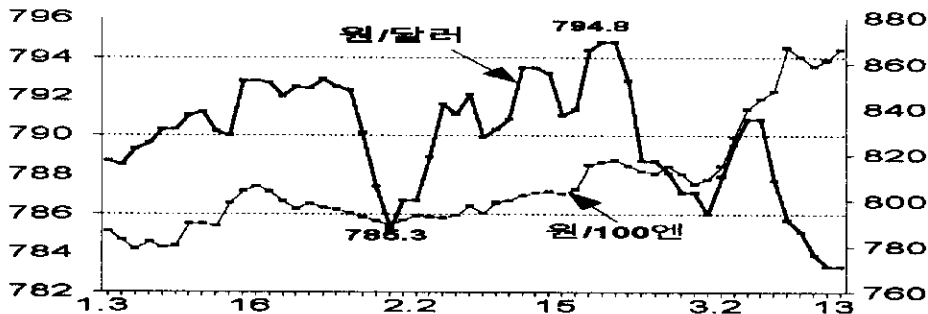
(손영기)

2. 元貨 換率

- (動向) 원화對 달러화 換率은 11일 783.3원으로 약 2년 3개월만의 最低值 기록, 원화對 엔화 換率은 8일 867.22원으로 史上 最高值 기록
- (展望) 3月末에는 수출 결제 수요 증대로 770원선까지도 切上될 것으로 예상됨

- (動向) 지난주초 790원선까지 切下되던 對美 달러 換率은 6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切上됨
 - 3월초, 수입 결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절하세를 보였던 원화 환율은 미달러화의 급작스런 폭락과 더불어 급격히 절상되었음
 - 3월 16일에는 779.2원/달러를 기록
 - 원화의 대엔화 환율은 2월말 809.47원에서 3월 16일에는 866.74원을 기록함
- (原因) 엔화 및 마르크화 對比 달러화 가치의 切下勢가 국내 시장에 반영됨
 - 원화의 대미 달러화 강세는 무역 수지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이 주춤해지고, 달러화 가치의 절하세가 국내 외환시장에 점차 반영되면서 빚어짐
 - 95년 1, 2월의 무역 적자는 25억 2,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9억 6,3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음
 - 한편, 원/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, 엔/달러 환율의 절상 속도가 원/달러 환율의 절상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임
 - 작년말 부터 3월 16일까지 원/달러 환율은 1.2%절상, 엔/달러 환율은 10.2% 절상됨
- (展望) 長·短期的인 切上勢가 불가피할 것으로 展望됨
 - 3월말에는 달러화 약세 기조속에서 수출 결제 수요가 몰려 770원 선까지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
 - 장기적으로는 엔고로 인한 수출 호조, OECD 가입을 의식한 국내 금융 시장 개방폭 확대 등으로 외국 자금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됨

<원화 환율 변동 추이>



(이 준 호)

3. 株價

- (動向) 주가는 대내외 여건 호조로 2월 28일 885.69에서 3월 16일에는 954.16로 크게 상승하였음
 - 대외 요인 : 엔고 현상에 따른 수출 향상 기대
 - 대내 요인 : 경기 활황 지속, 금리 안정, 주가 조작 수사 종결,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
- (展望) 바닥권 확인후 점진적 상승 예상

(動向)

- 영국 베어링 금융 그룹 파산, 덕산 그룹 부도 등 각종 악재의 영향은 3월 초까지 마무리되고, 이후에는 대내외 여건의 호전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음
 - 일본의 엔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화학, 전자,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었음
 - 경기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가 안정되고, 그동안 주식 시장을 억눌러 왔던 작전 종목에 대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되었음

< 주식 시장의 주요 지표 >

	2월 2일	2월 15일	2월 28일	3월 16일
종합 주가 지수	943.35	926.09	885.69	954.16
회사채 수익률	15.23	15.35	15.45	15.20
대 달러 엔화 환율	99.32	98.57	96.93	89.65

(展望)

- 투자 심리의 급격한 호전에 따른 주식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 - 엔고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화학, 전자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. 이는 해당 산업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
- 3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주식 시장 규제 완화책도 투자 심리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3월은 바닥을 확인하고,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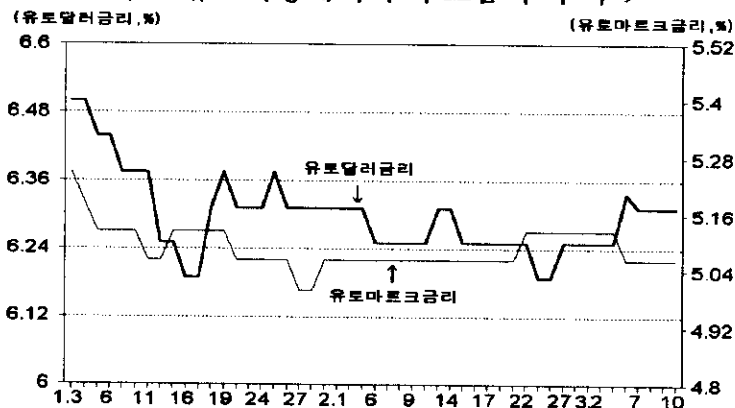
(강 천 모)

4. 國際 金利

- (動向) 유로달러금리는 보합세를, 유로마르크금리는 하락세를 보임
- (焦點) 미국은 경기 하강 우려로, 독일은 인플레이 압력으로 금리의 정책 선택이 딜레마에 빠져 있음
- (展望) 3월 중 미국과 독일의 금리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

- (動向) 유로달러금리는 보합세를, 유로마르크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 - 달러화 지지를 위해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로 유로달러금리는 3월 3일 6.25%에서 3월 15일 현재 6.25%로 보합세를 보였음
 - 유로마르크금리는 2월 22일 이후 5.13%에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유럽통화체제의 불안으로 3월 6일부터 5.06%로 하락하였음
- (焦點) 미국의 금리 인상과 독일의 금리 인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
 - 미연준의 달러화 가치 회복을 위한 금리인상조치가 딜레마에 빠져 있음
 - 금리 인상은 하강세가 우려되는 미국의 경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임
 -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중남미의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역류되어 중남미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
 - 독일도 유럽통화체제의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르크화 가치의 안정이 절실하나 이를 위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
 - 금속노련의 임금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아 물가 불안요인이 있음
- (展望) 3월중에 미국과 독일의 금리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
 -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기지표들이 혼조를 보임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어 3월 중에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적음
 - 유럽통화체제가 약세통화국의 금리인상과 환율 조정으로 안정국면에 접어들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독일 분데스방크가 3월 중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음

< 최근 유로시장에서의 주요금리 추이 >



(김 난 주)

5. 國際 換率

- (動向) 美 달러貨는 주요 통화에 대해 사상 최저치 기록, 마르크貨는 유럽의 주요 통화에 대비하여 전후 최고치 기록
 - 최근 달러화 약세의 직접적 요인은 美聯準의 금리 인하 시사
- (展望)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달러貨 弱勢 심리 지속 豫想
 - 미국의 무역 및 재정 적자, 멕시코 경제의 지속적인 불안정 등

- (動向) 3월 8일 동경 외환시장에서 엔/달러 환율은 89.38엔, 마르크/달러 환율은 1.3702마르크로 사상 최저치 기록
 - 독일 마르크화는 유럽 주요국의 통화에 대비하여 전후 최고치 갱신
 - 유럽통화정책위원회(EU Monetary Committee)는 3월 5일 스페인 페세타화와 포르투갈 에스쿠도화의 환율을 각각 7.0% 및 3.5%씩 평가 절하시킴
 - 그러나 3월 8일 독일과 미국의 금리 관련 발언으로 美 달러화는 소폭 절상세를 나타냄, 독일 마르크화는 유럽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냄
 -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독일 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시사 (3월 8일)
 - 프랑스, 벨기에, 덴마크가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한 금리인상 단행
 - 美聯準 의장인 앨런 그린스팬(A. Greenspan)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달러화 약세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발표하였음
- (달러화 弱勢의 原因) 미국의 무역 수지 및 재정 수지 적자로 빚어진 저축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미연준이 미국 금리 인하를 시사하여 환투기 심리가 급속히 확산됨
 -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
 - 작년 1,7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
 - 대일 무역 적자는 연간 약 600억 달러 이상임
 - 미국의 재정 적자
 - 94년말 재정 적자는 약 2,000억 달러

< 주요 통화의 연간 대미 달러 환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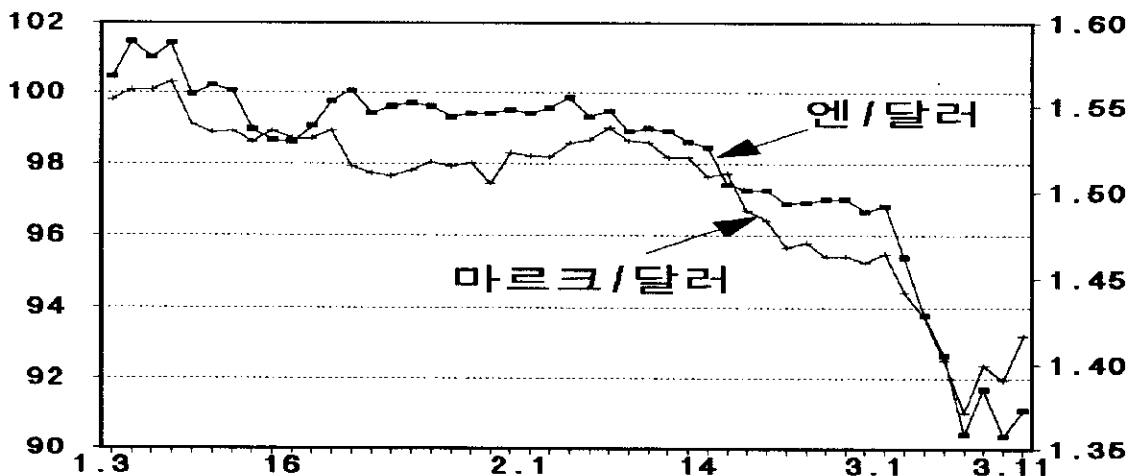
(기간 평균, 억 달러)

	91年	92年	93年	94年
마르크/달러	1.519	1.613	1.739	1.549
엔/달러	124.9	124.8	111.8	99.5
미국 재정적자	2,725	2,893	2,811	2,000(추정치)
미국 무역적자	738	962	1,324	1,700

자료: KOTIS

- 멕시코 페소화 폭락과 지속되는 멕시코의 경제 위기
 - 9일 페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7.45페소로 사상 최저치 (약 3개월만에 50% 평가 절하)
 - 멕시코 주식 시장 폭락
 - 영국, 프랑스, 스페인 등의 정정 불안과 영국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
 - 상대적으로 안전 통화로서의 마르크화 가치가 상승함(엔화 수요 동반 상승)
 - 최근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엔화 매입세 증가
 - 일본의 지진 복구와 94 회계 년도 결산을 위한 엔화 매입 증가
 - 미국의 경기가 둔화세를 나타내어 미연준이 미국 금리 인하를 시사함(2월 21일)
- (展望) 미 국내 요인의 조기 해소가 곤란하고 독일의 경제 상황이 맞물려 달러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며 85~95년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됨
- 미국 무역 적자 및 재정 적자 해소난과 멕시코 경제 위기의 지속
 - 금년 미국 무역 적자는 1,860억 달러 전망
 - 재정 적자 감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됨
 - 미국의 200억 달러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, 멕시코 경제 위기 지속
 - 독일의 금리 인하 가능성 회박
 - 독일 금속노조와의 임금 인상 합의가 예상외로 높은 선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인플레이 압력 고조
 - 일본 기업들의 엔화 매입세 지속
 - 일본의 회계 및 조세법 규정상 외화 표시 금융자산에 투자했을때 15% 이상의 평가손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실현하여야 함

<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환율 추이>



(이 준 호)